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 예측에 관한 비판적 평가: 이론중심적 사고를 중심으로

최 종 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 21 박사후연구원)

| 요약 |

본 논문은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를 예측하는데 있어 이론중심적 사고로 경도된 안보학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7년간 서구학계의 동북아 안보질서 평가는 분쟁과 불안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이고 편향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과학 이론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론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론중심적 사고의 특징을 분석적 증거틀로 삼아 서구주류학계의 동북아 예측을 평가분석한다. 본 논문은 지난 17년간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질서가 정말 불안과 분쟁적 경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즉, 지난 17년간 동북아의 지역질서 흐름 자체가 분쟁적, 혹은 “비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즉, 서구국제정치 주류학자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동북아 지역국가의 협력기조의 방향성이 퇴화하였는지, 그리고 지역 불안 요소들이 실제로 동북아 안정을 퇴행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 본 논문의 4장은 저자의 “Predictions of Tragedy vs. Tragedy of Prediction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pring 2006)을 통해 발표된 데이터 분석결과를 재구성하였지만, 그 이외의 논거와 분석틀은 새롭게 저술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대다수의 비관적으로 경도된 학문적 예측과는 달리 지역경제 통합과 안보협력의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질서는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로 본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동북아 질서의 발전적 방향이 진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관련 예측들은 왜 비관적인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즉, ‘비극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서구 국제정치의 주류시각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학계 전반에서 등장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적 고찰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동북아라는 관찰대상에 대한 변화를 진단하지 못하는 도구로서의 국제정치 구조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론을 사용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국제정치학자의 분석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에서 검증된 이론중심적 사고(Theory-Driven Reasoning)의 관찰자의 편견적 인식의 태도를 이용하여 기존의 동북아 안보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동북아를 예측하는 서구의 학자들의 지나친 이론중심의 사고가 자신의 이론이 측정하는 변수들의 변화만 관찰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하였는데, 주류 예측태도에 분석적 편견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사실상 동북아라는 관찰대상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요소들을 관찰자가 사용하는 이론틀에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였고, 이론 중심적 사고는 관찰대상의 변화와 정반대로 예측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1. 문제제기: 예측과 심리

사회과학자는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대체로 다섯 가지 영역의 분석 작업-기술 (description), 설명 (explanation), 예측 (prediction), 평가 (evaluation), 그리고 처방 (prescription)-을 수행한다.¹⁾ 이 다섯 가지 작업 중,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의 관찰영역을 이론이라는 렌즈로 관찰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작업, 즉 자신이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영역이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과학자들은 원인규명이라는 설명뿐만 아니라 기술과 평가 그리고 예측, 더 나아가 정책적 처방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사고와 실증적 검증이 되는 인과적 설명이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존재론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생명처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회과학의 예측력은 일기예보의 예측력보다는 그 적중성과 민감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는 사회 현상이 자연현상과는 달리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조 및 인간의 의도와 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현실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관찰대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상황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법칙을 규정하여 “모종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모종의 법칙에 따라 모종의 현상”이 관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이 예측을 근거로 정책적으로 처

1)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ondon, England: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71), pp. 278-279.

방을 내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제정치 영역은 사회과학의 5가지 분석작업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문영역일 것이다.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안보와 외교, 그리고 이익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기술”하고, 관찰대상인 국가의 의도와 행위의 근본 원인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국제정치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학문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에 정책적 “처방”을 통해 “훈수”를 두기도 하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학문 영역이 국제정치학일 것이다.

탈냉전 직후인 1990년대 초반,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냉전의 종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괴리 속에 한편으로는 이를 반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정당화로 비판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났다.²⁾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예측의 실패에 관한 논의의 와중에서도 새로운 안보와 분쟁에 관한 연구대상을 모색하는 작업 역시

2) John Lewis Gadd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3 (Winter 1992/93), pp. 5-58; Stefano Guzzini, “Structural Power: The Limits of Neorealist Power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7, No. 3 (Summer, 1993), pp. 443-478; Charles W. Kegley, Jr., “The Neoidealist Moment in International Studies? Realist Myths and the New International Realit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June 1993), pp. 131-147; Friedrich Kratochwil, “The Embarrassment of Changes: Neo-realism as the Science of Realpolitik without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9, No. 1 (January, 1993), pp. 63-80; Richard Ned Lebow and Thomas Risse-Kappe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Richard Rosecrance and Arthur A. Stein, eds., *The Domestic Bases of Grand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계속되었으며 동북아는 냉전 이후 분쟁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서구 국제정치학계에서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 안보학”에서 이 지역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예측이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자리잡았다.

동북아는 불안정과 분화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는 유럽이 지역주의에 의한 평화와 통합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정치이론상으로도 이 지역은 평화보다는 전쟁이, 안정보다는 분쟁과 불안정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된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학계 주류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의 측면에서 동북아 안보를 평가한 주류 사조는 신현실주의자와 신제도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자들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은 동북아의 미래가 군비경쟁과 지역패권경쟁으로 인해 분쟁적 질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신제도주의자들은 동북아지역이 유럽과는 달리 지역제도와 기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질서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자들 또한 동북아 내부에 강력하게 잔재하고 있는 역사적 불신이 상호 신뢰를 저해할 것이기에 안정적 질서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학계의 시각을 종합하면, 미래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서로 다른 국제정치학의 연구 시각으로부터 공히 “비극적 방향”의 경도된 시각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17년간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질서가 정말 불안과 분쟁적 경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즉, 지

난 17년간 동북아의 지역질서 흐름 자체가 분쟁적, 혹은 “비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즉, 서구국제정치 주류학자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동북아 지역국가의 협력기조의 방향성이 퇴화하였는지, 그리고 지역 불안요소들이 실제로 동북아 안정을 퇴행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대다수의 비관적으로 경도된 학문적 예측과는 달리 지역경제 통합과 안보협력의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질서는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³⁾

두번째로 본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동북아 질서의 발전적 방향이 진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안보관련 예측들은 왜 비관적인 방향으로만 일관되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즉, ‘비극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서구 국제정치의 주류시각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학계전반에서 등장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적 고찰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동북아라는 관찰대상에 대한 변화를 진단하지 못하는 도구로서의 국제정치 구조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론을 사용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국제정치학자의 분석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에서 검증된 이론중심적 사고(Theory-Driven Reasoning)의 관찰자의 편견적 인식의 태도를

3) 예측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두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왜 예측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관찰대상에 대한 평가이다. 이 경우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적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의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는 “왜 결과와 다른 예측을 하였는가” 하는 예측방법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있다. 본 논문은 이 후자를 연구문제로 채택하였다.

이용하여 기존의 동북아 안보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동북아를 예측하는 서구의 학자들의 지나친 이론중심의 사고가 자신의 이론이 측정하는 변수들의 변화만 관찰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하였는데, 주류 예측태도에 분석적 편견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사실상 동북아라는 관찰대상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요소들을 관찰자가 사용하는 이론틀에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였고, 이론 중심적 사고는 관찰대상의 변화와 정반대로 예측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사회과학의 다섯가지 분석 작업중 예측적 분석행위를 평가하려고 하며 또한 왜 심리학적 분석틀이 유효한가? 사회과학에서 예측이란 “현재 파악된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이 상호작용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여 미래의 변화를 판단”하는 분석 작업이다.⁴⁾ 따라서 예측은 분석자가 이론에 근거하여 현재의 알려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이라는 것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연구자가 실행하는 사회과학적 분석이고 보면, 분석가의 세계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측은 심리적 분석틀의 분석대상이 가능하다.

4) John R. Freeman and Brian L. Job, “Scientific Foreca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blem of definition and Epistem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3, No. 1 (March 1979), p. 118.

2. 이론중심적 사고 (Theory Driven Reasoning)

이론 중심적 사고란 관찰대상의 원인을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 구성을 통해 밝혀내는 분석적 사고이다. 즉, 독립변수의 연역화(deduction)를 통해 성격을 규정하고 독립변수들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종속변수로 관찰될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론 중심적 사고는 관찰 대상의 이론화를 통해 변수를 통제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 보다 엄격한(rigorous) 분석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사고는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발달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행위이다. 그리고 이론중심적 사고는 관찰 대상이 복잡하거나 추상적일 때 특히 많이 사용된다.⁵⁾ 독립변수에 대한 연역화는 이론중심적 사고에 중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의 과학화에 분명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은 복잡한 사회현상에 일반적 패턴과 가치 및 법칙을 구하고자 하는 행태주의적 학문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론중심적 사고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실험을 통해 인간 사고(思考)의 특성을 검증하는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드러난다. 인지심리학은 이론중심적 사고를 하는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다.⁶⁾ 첫째, 자신의 이론이 분석단위로 삼는 변수이외의 변수들을 아예

5) Robyn Dawes, "Judgment and Choice" in Daniel Gilbert, Susan Fiske,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1998).

6) Colin Camerer, "Individual Decision-Making: Part 2, Judgment," in J. Kagel and A. Roth, eds., *The Handbook of Experimental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 590-616.

관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Blind Effect).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론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론들에 반영하고 이론의 구조를 업데이트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인지적으로 선입관(bias)이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Slow Adjustment). 즉, 이론중심적 사고는 새로운 정보를 인지적으로 자기 이론들에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론을 구성하는 가정(assumption)을 연구자가 맹신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9.11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미정보당국의 분석성향에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군사정보국(DIA)의 분석관들은 자신의 정보분석들에 맹신에 가까운 과도한 자심감을 보이는 심리성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⁷⁾ 또한 자신의 예측이 실제 현상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 예측을 사후 정당화하려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테트락 (Tetlock)은 이론중심의 사고 경향이 사회과학자들에게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7)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port to the President*, (Washington, D.C: G.P.O., March 31, 2005), pp. 3, 13;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108th Congress, July 7, 2004, p. 18, pp. 25-26, 399-400, & 405-07.

8) Robin M. Dawes, "Prediction of the future versus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A basic asymmetr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06, no. 1 (Spring 1993), pp. 1-24.

국제정치학계의 전문가들은 인지적으로 자기 이론에 대한 과대한 자신감(Over-Confidence)으로 선입관이 강한 집단이라고 분석하였다.⁹⁾ 이러한 연구는 쿵만, 스나이더, 그리고 저비스 (Koopman, Snyder, Jervis)에 의해 재차 확인되는데 *International Security* 저널을 구독하는 독자의 인지적 성향이 이론중심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들 역시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¹⁰⁾ 즉 이들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상에 강하게 존재하는 가정(Mentally Installed Assumptions)과 관찰대상에 대한 강한 이미지(Pre-Existing Image)로 인해 새로운 정보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무시하는 경향, 그리고 자신의 이론이 여전히 맞아야 한다는 유연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석사고가 국제정치학자들에게 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

국제정치학은 복잡한 학문이다. 이는 국제정치가 국가간의 상호작용이 구성하는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국가의 외교적 행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복잡한 연계작용(Linkage Process)을 다루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9) Philip Tetlock, "Theory-Driven Reasoning about Plausible Past and Probable Futures in World Politics: Are We Prisoners of Our Preconcep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2 (April, 1999), pp. 335-366; Philip Tetlock, *Expert Political Judgment: How Good is It? How Can We Kno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0) Cheryl Koopman, Jack Snyder and Robert Jervis, "Theory-Driven versus Data-Driven Assessment in a Crisis: A Survey of International Security Reade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pp. 694-722.

해서 수많은 행위자가 서로 다른 활동영역에서 국내와 국제정치라는 공간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연구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국제정치학이 복잡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분석대상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즉, 국제정치영역의 사건과 행위자들은 일반 학자 수준에서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국제정치의 사건들은 언론이나 정부당국자의 입을 통해 ‘걸러져 (Filter)’ 나오는 매우 간접적 관찰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은 그 분석수준과 대상에 따라 연역적 이론화가 심화되어 있는 학문 영역이다. 이를 테면 구조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를 이성적인 단일 행위자로 가정한다. 이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최고가치로 상정해야한다는 당위적 명제 때문에 국가를 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하고, 이러한 시각으로 국가의 외교행위는 번영과 생존을 위한 이성적 의도로 파악한다. 국제정치의 구조이론은 국가의 의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이 국가간 물질적 힘의 분배라는 구조에 대해 이론화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이론에 대한 분석적 의존이 강한 연역적 (Deductive) 학문이며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론중심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경향이 강할수밖에 없다.

3. 탈냉전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예측들을 중심으로

서구국제정치학자들은 탈냉전직후 동북아 안보질서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들의 이론적 틀을 통해 여러 예측을 분

석서나, 학술논문 그리고 신문기고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적 분석문헌들은 공통적으로 동북아를 지역국가간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지역으로 분류한다. 즉, 분석자의 이론적 틀이 현실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든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든 간에 이들의 공통된 예측 내용은 비관적(pessimistic)으로 나타난다.

신현실주의와 신제도주의는 공통적으로 구조이론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물질적 힘과 이 힘의 분배가 구성하는 무정부적 국제정치의 속성이 분석의 독립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의 속성이 바로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의 행동반경을 결정하는 범위(Scope Condition)로 취급하며, 무정부적 정치구조에서는 국가는 자조적 정책(Self-Help)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사고를 한다. 따라서 국제정치상 힘의 분배, 즉 구조의 급작스런 변화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적 힘을 강화해야만 생존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 자체가 구조적 불확실성으로 나타나 국제정치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따라서 탈냉전과 같은 구조상의 변화는 불확실성을 강화 시킬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지역이 동북아라고 예측한다. 즉, 동북아 지역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1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Michael E. Brown, Sean M. Lynn-Jones and Steven E. Miller, eds.,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5); Kenneth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Summer 2000), pp. 5-41; John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13-18.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확실성으로 지역국가들은 상대적 국력과 국위 (Relative Power and Prestige) 향상을 위해 경쟁적 지역 질서를 형성 할 것이고 이러한 질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의 근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탈냉전 동북아의 미래에 접근하지만 이들이 도출하는 동북아의 미래 역시 비극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레짐이나 제도의 안정성은 소위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있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지역내 '상설화된 제도'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는 규범화된 규율과 규칙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국가들의 상호행위를 보다 안정된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사고한다.¹³⁾ 그러나 동북아에서 이렇게 상설화된 제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근본 여건

12) Aaron Friedberg,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Vol. 42, No. 3 (Autumn 2000), pp. 147-159; James Goldgeier and Michael McFaul, "A Tale of Two Worl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1992), pp. 467-492; Barry Buzan and General Segal, "Asia: Skepticism about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5), pp. 82-84; Michael T.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and William J. Murphy, "Power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U.S.-China Security Perceptions and the Challenges of Systemic Adjust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4 (Winter 1994); Gerald Segal, "'Asianism' and Asian Security,"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1995/1996), pp. 58-65.

13) Ernst Has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World Politics*, Vol. 44 (April 1992), pp. 466-96.

(예: 다자협력의 문화와 관습) 자체가 부족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소위 안정되고 “질서 정연한 지역안보의 태동 (Orderly Regional Security)”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개변수의 부재로 인해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기에 분쟁적 질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¹⁴⁾ 구조이론내에서 탈냉전이라는 체제상의 구조변화가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냉전시기 미소경쟁에 의해 억눌렸던 지역고유의 현안이 불거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지역차원의 경쟁질서가 발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1990년대 초기, 동북아 예측서들은 소련의 소멸, 중국의 급성장, 한반도 핵화, 일본 경제의 팽창,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불확실성등과 같은 불안정한 힘의 분배 양상은 이 지역에서 다극화를 초래 할 것이고 이것이 지역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⁵⁾

1993년 아론 프리드버그 (Friedberg)는 동북아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다극화”로 변화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강대국 경쟁이 첨예한 지역 (A Cockpit of Great Power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14)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 as Intervening Variables” and Arthur Stei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 Stephen D. Krasner, eds.,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23, and pp. 115-141.

15) Michael T.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and William J. Murphy, “Power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U.S.-China Security Perceptions and the Challenges of Systemic Adjust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4 (Winter 1994); Gerald Segal, “‘Asianism’ and Asian Security,”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1995/1996), pp. 58-65.

예측하였다.¹⁶⁾ 리차드 베츠(Betts) 또한 동북아 지역이 “유럽질서의 정 반대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재한 지역”으로서 불안정으로 점철된 탈냉전 질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⁷⁾ 또한 제럴드 시겔(Segal)은 동북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중국중심의 지역질서를 강조하며 “냉전 후 지역국가들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로 회귀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중국전제 심리가 이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마이클 클레어 (Klare)는 신제도주의적 색채를 가미하여 이 지역에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는 한 “20세기 초 유럽이 겪었던 것처럼, 동북아의 20세기 말 21세기 초는 주기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⁹⁾ 월든 (Walden)은 보다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는데, 탈냉전기 직후 동북아 지역을 “강성 민족국가가 주요 행위자이며,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었던 양차대전 사이의 유럽”과 유사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²⁰⁾ 이러한 예측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베리 부잔(Buzan)은 동북아 지역 질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비관론자들의 예측

16)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4), p. 7.

17) Richard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4), p. 34.

18) Gerald Segal, “A Riskier East Asia for Lack of a New Security Ord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8, 1994). Document available online at <http://www.ihf.com/cgi-bin/search.cgi?query=ByGeraldSegal&sort=swishrank>.

19) Michael T.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Summer 1993), p. 152.

20) Arthur Walden, “Deterring China,” *Commentary* (October 1995), p. 21.

이 현실로 나타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든다”라고 단정한다.²¹⁾

이러한 비판적 예측은 1990년 중반과 후반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주요 국제정치학술지나 언론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은 지역내 제도적 취약성, 한반도와 양안관계의 안보적 민감성, 지역국가들간의 역사분쟁, 그리고 중일간의 세력변이 등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이 199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 경제적 부의 축적이 역내 세력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물질적 힘의 변동은 군비경쟁(Arms Race)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동북아 관찰자들은 역내국가들의 국방비 증가와 무기획득 증가가 군사경쟁의 증거이며 결국 지역내 안보딜레마 상황을 초래하여 역내 안정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질서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이와 같이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역내국가로 하여금 불신과 상호오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역사적 인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역내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Kristof)는 탈냉전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역사적 반목과 분쟁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매우 깨지기 쉬운 상태”로 규정한다.²³⁾ 미어샤이머(Mearsheimer) 역시 이에 동의하며 “동북아는 현재 다극체제로서 불안정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강대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정한다.²⁴⁾ 즉, 미국과 일본과 같이 동북아 힘의 분배를 현상유지세력

21)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2 (Summer 1994), p. 3.

22) Paul Bracken, *Fire in the East* (New York: HarperCollins, 1999), pp. 71-94.

23) Nicholas D. Kristof, “The Problem of Memory,” *Foreign Affairs* (Nov/Dec, 1998), p. 38.

(The Status Quo Power)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결속을 강화할 것이고, 이러한 세력균형 정책이 오히려 부상국가 중국을 자극하여 양세력간의 경쟁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 지역의 역내국가인, 중국, 일본, 남한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은 전면전에 치달을 수 있는 후보국가들”²⁵⁾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적 예측은 2003년 자유주의자인 아이켄베리와 마스탄두노 (Ikenberry, Mastanduno)에 의해 반복되는데, 이들은 동북아 지역은 “다양한 문화, 상이한 정치체제, 역사적 분쟁 요소, 세력변동, 동맹변화 그리고 급격한 경제적 변화가 엮여져 있는 모자이크”와 같기 때문에 “안보딜레마, 국위경쟁, 영토분쟁, 배타적 민족주의, 경제분쟁 등과 같은 불안정한 질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²⁶⁾

1990년대 중반 중국의 급성장은 그 동안 팽배했던 비극적 예측을 더욱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한다.²⁷⁾ 이들이 사용하는 이론적 시각은 부상국가가 자국의 위치와 이익에 맞게 역내질서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세력전이론적 시각이다.²⁸⁾ 소위 “중국 위협론”은 중국의 부상

24)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01), p. 362, p. 382.

25) Christopher Layne, “Less is More: Minimal Realism in East Asia,”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6), p. 72.

26)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arch for Regional Stability,”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 2.

27) 중국위협론에 관한 가장 최근 발표된 논문은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2 (Fall 2005), pp. 7-45 참조.

국력을 중국의 팽창주의적 의도와 동일시하는데, 데니 로이(Roy)의 경우 “국가의 행위가 국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중국이 거대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역량 자체가 중국의 외교행위를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⁹⁾ 이에 2005년 브리젠스키와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쟁하였던 미어사이더 역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고도성장을 유지한다면, 미중간의 전쟁 유발이 현저히 높은 안보경쟁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⁰⁾ 중국 위협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상 국가 중국은 미국중심의 지역질서에 도전할 것이며, 또한 역내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공격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잘 것이며, 역사적으로 향유했던 역내 패권국가로 부활하고자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 동북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³¹⁾

28)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208–209.

29) Denny Roy, “Hegemony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1 (Summer 1994), p. 165. 중국 위협론과 동북아 안보미래에 관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Joseph S. Nye,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Vol. 39, No. 4 (1997), pp. 65–79; Gerald Segal,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2 (Summer, 1993); Paul Dibb,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Adelphi Paper*, No. 295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Oxford University Press, May 1995).

30) Zbigniew Brzezinski and John J. Mearsheimer,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Feb. 2005).

31)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 pp. 59–74; Gerald Segal,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 5 (Sept./Oct. 1999);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신)현실주의자들과 (신)제도주의자들은 구조적 변수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역내 고유의 변수를 자신의 이론틀에 매개변수로 삼는다. 이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변수가 바로 역사적 인식에 관한 변수이다. 따라서 한중일 간의 역사적 적개심은 상호 불신과 오해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장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 크리스텐슨 (Christensen)의 경우 중일 관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역사적 불신과 오해는 중일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하여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는 결정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³³⁾ 같은 선상에서 (신)제도주의자들 역시 역사적 반감과 기억이 안보기구와 같은 다자 협의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다자기

(March/April 1997), pp. 18–32; Brad Roberts and Robert Manning, et al.,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pp. 53–63; Phillip C. Saunders and Jing-dong Yuan, “China’s Strategic Force Modernization: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in Michael Barletta, eds., “Proliferation Challenges and Nonproliferation Opportunities for New Administrations,” *Occasional Paper#4* (October 2000), pp. 40–46; Charles Wolf, Jr., K.C. Yeh, Anil Bamezai, Donald Henry, and Michael Kennedy, *Long-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 (Santa Monica: Rand, 1995); Eric Strecker Downs and Philp C. Saunders,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3 (Winter 1998/99), pp. 114–146; Andrew Scobell and Larry M. Wortzel, eds.,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Perspectives on Security,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2).

32) 이들의 이론적 배경은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h. 3 참조.

33) Thomas Christensen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pp. 49–80.

구의 부재는 본질적으로 지역국가간 상호의도에 대한 불신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역내 질서는 불안정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³⁴⁾ 구조주의자들은 불안정한 힘의 분배와 지역다자기구의 부재, 역사적 인식 요소 등의 순열로 인해 미중 및 중일관계는 경쟁과 불신, 분쟁과 불안정으로 퇴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학자들의 동북아 예측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중국의 부상은 미국중심의 패권질서에 도전을 가할 것이고, 둘째 한중일과 같은 동북아 중추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불신은 감정적 대응으로 나타나 치유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지역질서에 가미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역내 국제기구의 부재로 인해 탈냉전기 동북아 지역질서는 비극적인 질서, 즉 불안정하고 분쟁적으로 퇴행하는 질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의 진단

동북아 안보질서에 관한 예측적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비관적인 논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가 과연 현실화되었는지는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경험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정 지

34) Robert A. Manning and Paula Stern, "The Myth of the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pp. 79-93; John Duffield, "Asia-Pacific Security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Ikenberry and Mastanduno eds., *ibid.*, pp. 243-70.

역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퇴행적인지 발전적인지 측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분석적인 잣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질서의 안보적 요소, 경제통합적 요소, 그리고 지역분쟁적 요소를 어떻게 지역국가 당사자들이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였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구조주의적 예측들이 구조차원의 불안정성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구조차원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 질서의 진행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즉, 앞서 거론한 구조차원과 역내 고유 변수들이 지역의 분쟁적 요소를 강화하였다면 비관적 예측들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역질서가 불안정 변수들을 협력적인 형태로 관리하고 극복하였다면 동북아 지역질서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화하였다고 판단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 후 지난 17년간 동북아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보위기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안보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가간의 협력구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발적인 안보위기는 지역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구조의 구조적 불안정을 작동화 시킬 수 있었지만, 이는 지역국가들이 다자적 협력을 통해 소화(消火)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중일간에 분명 역사적 인식과 영토분쟁과 같은 지역안정 불안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상외교와 정치적,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탈냉전기에 더욱 강화되고 조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⁵⁾ 1979년 이후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는 국가들간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러한 양상은

구조적 요소가 불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탈냉전기에도 유지되었다. 미중간에 있어서도 대만의 독립문제와 북핵문제는 오히려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³⁶⁾ 따라서 지난 17년간의 동북아 지역질서는 보다 다면적이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국가들은 지역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4-1]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내 군사적 위기는 정기적으로 나타난다. 구조주의자들이 예측하였듯이 안보불안 요소들은 지역내 긴장도를 강화시켰지만, 사실상 지역질서를 불안정하게 퇴행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지역질서의 경향은 지역국가들의 지역정치가 분쟁적 행태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적 균형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4-1] 주요 동북아 군사안보위기 연표

연도	사건	결과
94.10	황해상에서 미국 키티호크 항공모함 과 중국의 한급 잠수함의 충돌	미중해군협력안 (The Maritime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94	제1차 북핵위기	미북 기본합의서 체결 및 KEDO 설립
95.06	대만 이등휘 총통의 미국 방문을 항의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	미중간 군사긴장 고조 후 외교적 해결

35) Muthia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p. x.

36) Richard Bush and Catharin Dalpino, eds., *Brookings Northeast Asia Survey* (Washington, DC: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2003), p. vi.

96.03	중국: 대만해협에서 탈냉전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실시	미국: 2개 항모전단 파견
98.08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 일본 열도 상공 통과	일본: KEDO 지원금 (10억불) 중단. 대북 위협 증가 제기
99.05	미: 벨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격	미국의 공식사과
99.06	제 1차 서해교전	남북 장관급 회담 및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01.04	하이난 부근 미국의 EP-3 정찰기와 중국의 F-8 전투기의 추돌. 미 정찰기 중국 영토 강제 착륙	미국: 공식사과 중국: 기체 반환 및 정찰 요원 송환
02.07	제2차 서해교전	고위급 군사회담
2004-2006	제2차 북핵사태: 북 NPT 탈퇴 선언 및 06년 10월 북핵실험	긴장고조 및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북한: 6자회담 복귀 선언[현재진행형]

그러나 이 지역의 안보질서 자체가 조화속에 평화스러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분명 이 지역에서 탈냉전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안정구도를 퇴행적으로 역행시킬 수 있었던 안보위기들이 적잖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역내와 역외의 안보쇼크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질서는 지역국가들간 전면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보딜레마의 출현을 억제하였다.

냉전이 급작스럽게 끝나면서 동북아 지역국가들은 미국의 역내 개입 정도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사실 미국 스스로도 탈냉전기 동북아 정책을 갑작스럽게 재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명확한 대아시아 정책을 바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역내 개입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국제정치학자들은 지역국가들의 자조적

국방노력으로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³⁷⁾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의혹은 동북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에 안보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더욱이 중국의 부상 또한 동북아의 안보위기 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군비경쟁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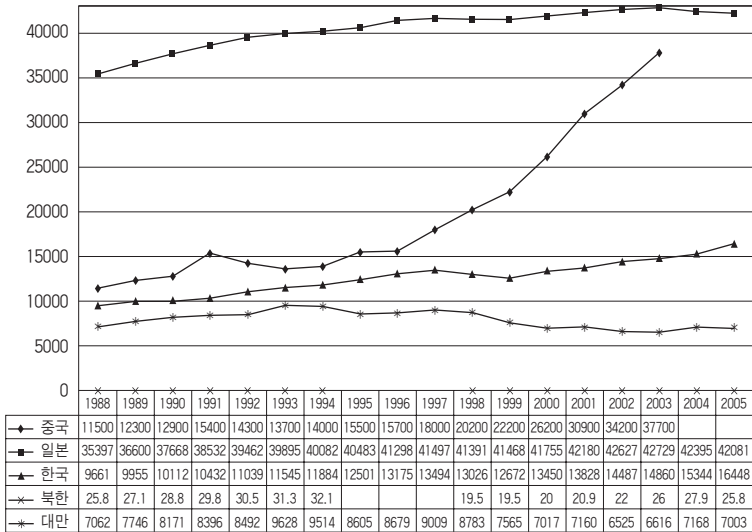
[그래프 4-1]에 나타나 있듯이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를 2003년 미화로 측정해본 결과 지속적인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 중, 중국의 군비증가는 1996년부터 연평균 13%의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역시 탈냉전기동안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 초기인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의 동북아 지역국가의 평균 군비증가율은 11.4%로서 같은 시기 유럽의 -6.4 %, 북미의 -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⁸⁾ 하지만 지역내의 군비증강 자체가 군비경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7) Andrew Mack and Desmond Ball, "The Military Build-Up in Asia-Pacific," *Pacific Review*, Vol.5, No.3 (Spring, 1992), pp. 197-208; Gerald Segal, "Managing New Arms Races in the Asia/Pacific,"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p. 83-101; Michael Klare, "A New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136-152.

38)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 1991-1992* (London :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1993), p. 2, p. 8.

[그래프 4-1] 탈냉기 동북아 주요국가 군사비 변화 측정³⁹⁾

(2003년, 단위 :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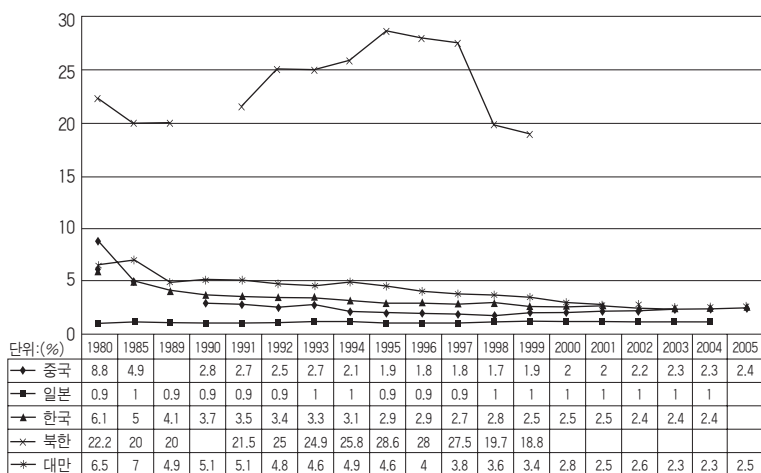


무정부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지역 구도속에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이웃 국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된다. 비록 군사력 증강 자체가 방어적 의도라 할지라도 이웃국가가 이를 공세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이웃 국가 역시 방어적 동기에 입각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증가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속에서 군비 경쟁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역내 국가의 군비증강은 이웃국가는 물론 역내 국가 전체에 안보불안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내 군사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역내국가들은 자국의

39) The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database1.html.

GDP 대비 군사비를 증강해야 한다. 이를 테면, 이웃국가의 군사비증강을 공세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어적 대응차원으로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면 자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다 많은 비용을 군사비로 전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국의 GDP대비 군사비가 일정액을 유지하거나 감소한다면 지역내 군비경쟁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상대적 군사비 상승률은 같은 [그래프 4-1]과 같은 시기로 측정하면 [그래프 4-2]와 같다.

[그래프 4-2] GDP 대비 동북아 주요 국가 군사비 변화 측정(%) ⁴⁰⁾



[그래프 4-1]과 [그래프 4-2]는 상반된 군비지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4-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탈냉전기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지출은 북한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일정비율을 유지하였거나 미

40) The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ibid*.

세하게 감소되어가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 17년간 자국 GDP 대비 1% 선으로 군비를 유지하였고,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GDP 대비 2.94%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한국, 대만은 3% 선으로 자국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북한이 유일하게 군사비를 GDP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국가 일 것이다.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따라서 부의 창출과 더불어 지역적 안보딜레마가 존재하였다면 각국의 군사비는 GDP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래프 4-2]에 나타나 있듯이 역내 국가들의 군비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역내 군비경쟁이 존재할 것이라는 평가는 다소 과장되었다. 즉, 역내 국가의 경제성장 자체가 군비의 절대 액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지역국가들간의 상호위협인식에 의한 군비증가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⁴¹⁾

2007년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역내 다자 안보와 협력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기구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통합적이며 공식적인 차원의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동북아에서는 보다 현안과 과제중심 (Issue &

41) Tae Hyun Kim, "Putting Muzzle on the 'Dragons': Military Buildup and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in Jonathan D. Pollack and Hyun-Dong Kim eds., *East Asian's Potential for Instability & Cris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anta Monica, CA.: RAND, 1995), p. 91.

Task-Specific)으로 나타나 지역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기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4-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을 포괄하는 다자협력체(Multi-Lateral)보다는 현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간의 미니협력체(Mini-Lateral)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안을 관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니협력체들의 제도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초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소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지할 사항은 구조상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불신과 역내세력분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미니협력체들은 쌍무 협상과 다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상호불신을 약화시키는 예방외교의 장 (A Forum For Preventive Diplomacy)이 되어 왔다. 이러한 느슨한 차원의 동북아 미니협력구도

[표 4. 2] 동북아의 미니협력체와 참여국가

	성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APEC (1989)	협의체	*	*	*	*
CSCAP (1992)	비정부	*	*	*	*
ARF (1994)	협의체	*	*	*	*
KEDO (1995)	협력체	*		*	*
ANEARG (1996)	협의체	*	*	*	
4-Party Talks (1997)	협상체	*	*		*
ASEAN+3 (1997)	협의체	*	*	*	
TCOG (1999)	협의체	*		*	*
Six-Party Talks (2004)	협상체	*	*	*	*
Tripartite Committee (2004)	협의체	*	*	*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ARF: ASEAN Regional Forum; KEDO: Korea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ANEARG: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SEAN +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Plus NEA state;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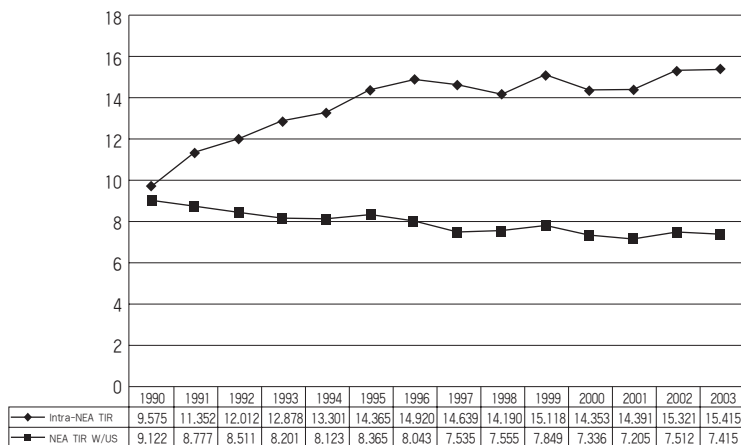
는 역내 질서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²⁾

동북아는 한중일의 세계 최대 교역국가로 이루어져있는 지역이다. 교역국가는 수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그리고 교역국가간 연계작용을 통해 기술이전과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따라서 교역 당사국간에 상호의존성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 증가한 상호의존성을 통해 발생된 경제동력을 이용하여 교역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 그렇다면 지역국가들 사이의 수출입의존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무역 집중도 지수 (TIR: Trade Intensity Ratio)를 사용하는데, 이 지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형성된 무역관계에서 얼마만큼 상대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⁴³⁾ 즉 역내 한중일 3개국의 상호무역집중도 수치가 높을수록 무역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 4-3]은 동북아 삼국간의 무역집중도와 동북아 삼국의 대미무역집중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2) Amitav Acharya, "Culture, Security, Multilateralism: The 'ASEAN Way' and Regional Order,"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9, No. 1 (1998), p. 58.

43) TIR의 수치가 클수록 무역당사자간들의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무역집중도는 $\frac{X_{ij}}{M_i} \div \frac{X_j}{M_w}$ 의 공식을 사용 [X_{ij} = 국가i 국가j에 수출하는 총량; X_i = 국가i의 수출총량; M_j = 국가j의 수입총량; M_w = 세계수입총량].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는 Robert F. Ash and Y.Y. Kueh, "Economic Integration within Greater China: Trade and Investment Flows Between China, Hong Kong and Taiwan" in David Shambaugh, eds., *Greater China: The Next Superpow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66-67 참조.

[그래프 4-3] 동북아 3국간 무역집중도와 동북아3국의 대미무역집중도의 변화.⁴⁴⁾



동북아 3국의 역내 무역 집중도 (Intra-NEA TIR)는 탈냉전기 기간 동안 매우 급속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동북아 3국의 대미 무역 집중도(NEA TIR W/ US)는 1990년의 9.12에서 2003년 7.415로 변동되어 -18%의 감소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동북아 역내 무역 집중도는 1990년 9.757에서 2003년 15.415로 변화하여, 58%의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 3국의 역내 무역 집중도와 동북아 3국의 대미무역 집중도의 격차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동북아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역내 자립적 상호 무역의존성 또한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북아 3국의

44) 1990-1996년의 데이터는 1997년 발간된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에서 발취하였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는 2004년에 발간된 DOT에서 취합하였다. DOT는 The Real Sector Division, International Statistics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출간됨.

경제관계가 역동적으로 얽혀있어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례로 2002년 일본의 수출 증가율의 60.8%가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92.4%까지 차지하였다.⁴⁵⁾ 따라서 최근 10년간의 불황에서 탈피하고 있는 일본의 회복세는 중국의 성장동력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시장경제의 현대화, 한국의 구조조정, 동북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역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자본, 기술과 노동의 연계효과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⁴⁶⁾

중국의 경제적 부상 자체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역내 국가들은 오히려 이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분명 존재한다.⁴⁷⁾ 이는 중국의 부상 자체가 수출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 교류에 있어서 2003년 5월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중국학생의 수 (70,814명)의 수는 미국에 유학중인 중국학생(64,754명)의 숫자보다 많은 상황이고,⁴⁸⁾ 한국의 대중유

45) Economic Research Division, Bank of Japan,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Dramatic Expansion and Structural Changes," *Economic Commentary*, No 2003-03 (Aug, 2003), pp. 1-2;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2004*, pp. 14; "Dragon and the Eagle," *Economist* (Sept. 30, 2004). 인터넷문서 (<http://www.economist.com/surveys>).

46) Gilbert Rozman, "A Regional Approach to Northeast Asia," *Orbis* (Winter, 1995), pp. 70-71.

47) David Kang, "The Declining U.S. role in Asia: The Theoretical Roots of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APSA.

48)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On Enhancing Student Exchanges," Online document (June 30, 2005) available at <http://www.mext.go.jp>.

학생 (2004년 23,722명)과 대일유학생 (2004년 16,992명)은 대미 유학생 (2004년 56,390명)을 곧 추월할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⁴⁹⁾ 이는 부상국가가 반드시 위협이기 보다는 기회로 인식하는 측면이 동북아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동북아 질서는 안보와 지역협력체,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발전형태를 띄며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 지역의 질서자체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이 지역에는 분명 역사적 시각차에 의한 외교분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삼국간 외교 마찰과 긴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는 여론을 자극하여 상호불신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동시에 동북아 3국은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가 안정적 동북아질서를 저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주지해야 할 바이다. 여기에 동북아 지역 질서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사에 대해 분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지만, 이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 질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이고도 관념적인 합의를 하

49)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South Korea, Available online at http://www.studyinkorea.go.kr/ENGLISH/G100/G100_Co.jsp.

50) Dennis Van Vranken Hickey, *The Armies of East Asia: China, Taiwan, Japan and the Koreas* (Boulder, CO: Lynne Reiner Publishers, Inc., 2001); Kent E. Calder, *Pacific Defense: Arms, Energy, and America's Future in Asi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6); Tim Huxley and Susan Willett, "Arming East Asia," *Adelphi Paper*, No. 329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9).

고 있는 점은 이 지역 질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에 나타나 있듯이 이 지역의 과거사 분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거사 분쟁은 실질적인 동북아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끼치지 못하고, 동북아 질서의 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3] 동북아 역사 문제의 현안 요약

국가	현안	진행상황
중국-일본	남경대학살	중국의 지속적인 사과 및 진상규명 요구; 일본은 충분히 사과하였다는 반응
한국-일본	위안부, 문화재반환, 역사교과서, 강제징용보상	2002년 3월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2명의 양국 역사학자들이 50회의 회담을 거쳐 2006년 6월 1일 보고서 발간
북한-일본	반도침탈 사과 및 보상요구	북핵 및 일본인 강제납치로 인해 협상중지
한국-중국	동북공정: 고구려 및 발해사의 중국 역사 편입 문제	양국 외무장관의 회담을 통한 구두 합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지속적인 교섭

이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은 여타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역내 권력정치의 모습을, 때로는 협력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형성하는 지역질서는 분명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질서의 탈냉기적 성격은 분명 분쟁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질서는 과거사와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지역 질서를 퇴행적으로 선회시키지는 못하였다. 분명 이 지역의 군비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이들 국가경제 성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측면

과 안보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북아는 “여러 행위자들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모자이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¹⁾ 과거사 문제와 같이 분명 서로의 ‘신경’을 자극하는 지역적 현안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지역국가들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식적 노력 역시 경주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탈냉기 동안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 위기시 신중한 관리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 역시 이 지역 질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의 예측, 특히 구조주의자들의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의 비관적 예측과 현실상에서 나타나는 지역질서는 분명 상이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비관적 예측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북아 질서의 역동적 안정성이 분명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난 17년 동안 비관적인 동북아 질서를 예측하였다는 점은 분명 분석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분석적 함의 : 구조의 비결정성과 지역연구의 함의

분명 동북아 미래안보 예측과 지난 17년간의 동북아 지역질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괴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왜 지속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경도된 예측이 발생되고 있는지 정치심리학적인

51)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5), p. 66.

관점에서 고찰하고 함의를 구해본다.

첫째, 예측의 비극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으로 동기화된 편견(Motivated Bias) 때문 일 것이다. 즉, 국제정치학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론을 활용하여 한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통해 자기 이론의 적용력(applicability)을 높여야 하는 직업적 사명(Professional Mission)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학파의 우월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이 예상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를 것이다.

둘째, 사실 역사적 교훈이란 것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관찰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는 관찰자의 주관적 시각과 제한된 경험 그리고 이론에 따라 그 의미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한 지역의 '역사'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이론적 교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분석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학을 주도하고 있는 이론적 틀 그리고 이론을 사용하여 예측을 하는 서구국제정치학자들은 소위 역사의 교훈을 강조하는 분석 경향이 예측의 비극을 초래한 두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의 지역정치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을 판독하는데 이론적 사고가 지역정치의 이해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력균형이론과 세련전이이론의 틀로 동북아를 분석하면, 중국의 부상은 지역국가의 균형정책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이 현실주의에서 분쟁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안보딜레마의 상황으로, 그리고 기존의 존재하는 역사적 불신과 결합하여 지역정치는 매우 불안한 경로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시에 제도주의적 분석에서도, 지역의 제도와 기구의 부재로 인해 지역국가간의 협력은 매우 어려

운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이러한 분석행태의 중심에는 소위 이론중심의 사고가 있었다. 사실 이론중심의 사고는 사회과학자가 지녀야 할 학문적 미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측의 비극이 발생한 것은 유럽의 역사와 지역정치의 경험에서 발생한 국제정치의 이론틀을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럽적 편견이 발동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⁵²⁾ 더욱이,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지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지역국가의 행위의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구조중심의 사고는 지역국가의 전략행위의 동기를 분석상 가정 (assumption)으로 취급하였기에 실증적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 따라서 지역국가의 의도와 동기를 힘의 분배와 국제체제의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종속변수화 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의 구조중심적 예측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긍정적 변화와 관계없이 이론이 제시하는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동북아 안보를 예측하는 분석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구조이론이 독립변수로 파악하는 구조상의 변수-힘의 분배와 지역정치의 제도성-를 지나치게 강조(over-emphasize)한 경향이 다분히 강하였다.

52) 유럽적 편견의 오류에 관해서는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3-12; Kalevi Holst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ohammed Ayooob,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1995); Edward E. Azar and Chung-in Moon, eds.,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The Manag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College Park, M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988) 참조.

이러한 분석경향은 지역내 고유변수들을 분석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국가의 행위 동기를 지나치게 구조의 변화에만 그 원인을 두었기에, 국가의 위협인식과 이 위협인식에 반응하는 국내 정치변화 등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⁵³⁾ 따라서 이 변수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측 대상인 동북아는 불안정하고 분쟁적인 성격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넷째, 이론중심의 사고는 지역정치상 국가의 근본적 행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국가의 위협인식과 국가이익 자체를 분석상에서 수용하지 못하였던 비유연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구조중심의 분석 경향에서는 지역국가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역사인식 자체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취급되었고 이것 자체가 유연성이 부족한 구조이론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확증(Confirming Evidence)으로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유연한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적 변수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인식의 변수를 각 지역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어떻게 외교정책에 반영하

53) Gideon Rose,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ies," *World Politics*, Vol. 51, No.1, (1988); William C. Wohlforth, *The Elusive Power Balance: Power and Perceptions during the Cold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Randall Schweller, *Deadly Imbalances: Tripolarity and Hitler's Strategy of World Conqu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Fareed Zakaria,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Michael N. Barnett and Jack S. Levy, "Domestic Source of Alliances and Alignment: The Case of Egypt, 1962-19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 (Summer 1991), pp. 369-395.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질서 변동에 있어 역사적 반감과 기억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지역질서 변화에 나쁜 영향을 끼칠것인 가는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론적 원칙 (Theoretical Axiom)이 되어서는 유연적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예측들은 수출중심국가가 보다 안정적인 지역환경을 선호할 가능성을 간과한 면 그리고 이들이 안정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노력으로 인해 지역협력구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⁵⁴⁾

사회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사용하여 관심지역의 미래변동폭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분석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통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은 반드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 이론이 미래변동의 사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성찰적 고찰은 반드시 사회과학의 현실성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사회과학 이론 자체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이론이 정치행위자와 국가의 특정행위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질서의 미래를 설명

54) James L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National Interest* (Winter, 1994/1995), pp. 28-39; Etel Solingen,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Global and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62-71;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8-18; Stephan Haggard and Robert R.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Steve Chan,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어떠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지역국가가 형성하는 특정지역의 질서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변화의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석자세가 예측의 비극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⁵⁵⁾ 예측 모델은 새로운 정보와 환경에 얼마만큼 유동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 적실성과 정확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예측자는 이론중심적 사고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즉 정보 분석자가 얼마만큼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여 기존의 분석틀을 얼마만큼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가 예측의 유연성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자의 이론틀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하여 예측의 변수로 전환시키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자가 이용하는 이론틀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분석자의 인지심리학적 편견, 분석대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선입관들 역시 분석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⁵⁶⁾

55)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는 Richard Herrmann and Jong Kun Choi, "From Prediction to Learning: Opening the Experts' Mind to Unfolding History,"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2007).

56) Michele Alexander, Marilyn Brewer, and Richard Herrmann,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July 1999), pp. 78-93; Michele Alexander, Shana Levin and P. J. Henry,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 (February 2005), pp. 27-45; Richard Herrmann, James Voss, Tonya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September 1997), pp. 403-433.

그렇기 때문에 분석자는 독립변수에 대한 병렬적 나열을 하여 단선적으로 회귀하는 수준의 분석/예측 보다는 변수들의 성격을 보다 치밀하게 규명하고, 이 변수들간의 조합이 빚어내는 역학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파악이 제일 중요하며, 그 독립변수가 과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종건, “Predictions of Tragedy vs. Tragedy of Prediction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pring 2006).
- Acharya, Amitav, “Culture, Security, Multilateralism: The ‘ASEAN Way’ and Regional Order,”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9, No. 1 (1998).
- Alagappa, Muthia, eds.,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 Alexander, Michele, Brewer, Marilyn and Herrmann, Richard,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July, 1999).
- Alexander, Michele, Levin, Shana and Henry, P.J.,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 (February 2005).
-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ondon, England: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71).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Ash, Robert F. and Kueh, Y.Y., "Economic Integration within Greater China: Trade and Investment Flows Between China, Hong Kong and Taiwan" in Shambaugh, David, eds., *Greater China: The Next Superpow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Ayoob, Mohammed,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1995).
- Azar, Edward E. and Moon, Chung-in, eds.,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The Manag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College Park, M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988).
- Barnett, Michael N. and Levy, Jack S., "Domestic Source of Alliances and Alignment: The Case of Egypt, 1962-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 (Summer 1991).
- Bernstein, Richard and Munro, Ross H.,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 Betts, Richard,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4).
- Bracken, Paul, *Fire in the East* (New York: HarperCollins, 1999).
- Brown, Michael E., Lynn-Jones, Sean M, and Miller, Steven E., eds.,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5).
- Brzezinski, Zbigniew and Mearsheimer, John J.,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 /Feb. 2005).
- Bush, Richard and Dalpino, Catharin, eds., *Brookings Northeast Asia*

- Survey* (Washington, DC: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2003).
- Buzan, Barry and Segal, General, "Asia: Skepticism about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5).
- _____,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2 (Summer 1994).
- Calder, Kent E., *Pacific Defense: Arms, Energy, and America's Future in Asia*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6).
- Camerer, Colin, "Individual Decision-Making: Part 2, Judgment," in Kagel, J. and Roth, A., eds., *The Handbook of Experimental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Chan, Steve,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 Christensen, Thomas J.,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Dawes, Robin M., "Prediction of the future versus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A basic asymmetr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06, no. 1 (Spring 1993).
- _____, "Judgment and Choice" in Gilbert, Daniel, Fiske, Susan, Linds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1998).
- Dibb, Paul,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Adelphi Paper*, No. 295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Oxford University Press, May 1995).
- Downs, Eric Strecker and Saunders, Philp C.,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3 (Winter 1998/99).

- Economic Research Division, Bank of Japan,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Dramatic Expansion and Structural Changes," *Economic Commentary*, No 2003-03, (Aug, 2003).
- Freeman, John R. and Job, Brian L., "Scientific Foreca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blem of definition and Epistem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3, No. 1 (March 1979).
- Friedberg, Aaron L.,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2 (Fall 2005).
- _____,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4).
- _____,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Vol. 42, No. 3, (Autumn 2000).
- Gaddis, John Lew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3 (Winter 1992/93).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oldgeier, James and McFaul, Michael, "A Tale of Two Worl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1992).
- Guzzini, Stefano, "Structural Power: The Limits of Neorealist Power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7, No. 3 (Summer, 1993).
- Haggard, Stephan and Kaufman, Robert R.,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Hass, Ernst,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 Herrmann, Richard and Choi, Jong Kun, "From Prediction to Learning: Opening the Experts' Mind to Unfolding History,"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2007).

Herrmann, Richard, Voss, James, Schooler, Tonya and Ciarrochi, Joseph,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September 1997).

Hickey, Dennis Van Vranken, *The Armies of East Asia: China, Taiwan, Japan and the Koreas* (Boulder, CO: Lynne Reiner Publishers, Inc., 2001).

Holsti, Kalev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Huxley, Tim and Willett, Susan, *Arming East Asia, Adelphi Paper*, No. 329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9).

Ikenberry, G. John and Mastanduno, Michae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arch for Regional Stability," Ikenberry, in John, G. and Mastanduno, Michael,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2004*.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Kang, David, "The Declining U.S. role in Asia: The Theoretical Roots of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APSA.

Kegley, Charles W., Jr., "The Neoidealist Moment in International Studies? Realist Myths and the New International Realit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June 1993).

Keohane, Robert O. and Nye, Joseph S.,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 Kim, Tae Hyun, "Putting Muzzle on the 'Dragons': Military Buildup and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in Pollack, Jonathan D. and Kim, Hyun-Dong, eds., *East Asian's Potential for Instability & Cris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anta Monica, CA.: RAND, 1995).
- Klare, Michael T.,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Summer 1993).
- _____, "A New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 Koopman, Cheryl, Snyder, Jack and Jervis, Robert, "Theory-Driven versus Data-Driven Assessment in a Crisis: A Survey of International Security Reade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 Kratochwil, Friedrich, "The Embarrassment of Changes: Neo-realism as the Science of Realpolitik without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9, No. 1 (January, 1993).
- Kristof, Nicholas D., "The Problem of Memory," *Foreign Affairs* (Nov/Dec, 1998).
- _____,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Nov./Dec. 1993).
- Layne, Christopher, "Less is More: Minimal Realism in East Asia,"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6).
- Lebow, Richard Ned and Risse-Kappen, Thom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 Lemke, Douglas,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Mack, Andrew and Ball, Desmond, "the Military Build-Up in Asia-Pacific," *Pacific Review*, Vol.5. No.3 (Spring, 1992).

- Manning, Robert A., and Stern, Paula, "The Myth of the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 Mearsheimer, John,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 _____,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01).
-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World Politics*, Vol. 44 (April 1992).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On Enhancing Student Exchanges," Online document (June 30, 2005) , at <http://www.mext.go.jp>.
- Murphy, William J., "Power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U.S.-China Security Perceptions and the Challenges of Systemic Adjust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3, No. 4, (Winter 1994).
- Nye, Joseph S.,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Vol. 39, No. 4(1997).
- Richardson, James L.,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National Interest* (Winter 1994/1995).
- Roberts, Brad and Manning, Robert, et al.,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 Rose, Gideon,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ies," *World Politics*, Vol. 51, No.1 (1988).
- Rosecrance, Richard and Stein, Arthur A., eds., *The Domestic Bases of Grand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Roy, Denny, "Hegemony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1 (Summer 1994).
- Rozman, Gilbert, "A Regional Approach to Northeast Asia," *Orbis* (Winter 1995).

- Saunders, Phillip C. and Yuan, Jing-dong, "China's Strategic Force Modernization: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in Barletta, Michael, eds., "Proliferation Challenges and Nonproliferation Opportunities for New Administrations," *Occasional Paper #4* (October 2000).
- Schweller, Randall, *Deadly Imbalances: Tripolarity and Hitler's Strategy of World Conqu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Scobell, Andrew and Wortzel, Larry M., eds.,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Perspectives on Security,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2).
- Segal, Gerald, "'Asianism' and Asian Security,"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1995/1996).
- _____, "A Riskier East Asia for Lack of a New Security Ord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8, 1994), <http://www.ihrt.com/cgi-bin/search.cgi?query=ByGeraldSegal&sort=swishrank>.
- _____,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 5 (Sept./Oct. 1999).
- _____, "Managing New Arms Races in the Asia/Pacific,"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 _____,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2 (Summer, 1993).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5).
-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database1.html.
- Solingen, Etel,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Global and*

-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Stein, Arthur,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 Krasner, Stephen D., eds.,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Tetlock, Philip, "Theory-Driven Reasoning about Plausible Pasts and Probable Futures in World Politics: Are We Prisoners of Our Preconcep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2 (April, 1999).
- _____, *Expert Political Judgment: How Good is It? How Can We Kno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port to the President* (Washington, D.C: G.P.O., March 31, 2005).
-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108th Congress(July 7, 2004).
- Walden, Arthur, "Deterring China," *Commentary* (October 1995).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_____,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Summer 2000).
- Wohlforth, William C., *The Elusive Power Balance: Power and Perceptions during the Cold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Wolf, Charles, Jr., Yeh, K.C., Bamezai, Anil, Henry, Donald and Kennedy, Michael, *Long-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 (Santa Monica: Rand, 1995).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 1991-1992 (London :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1993).

Zakaria, Fareed,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n's World Rol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